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1/3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中, 상반기 GDP 성장률 2.5%... 2분기 0.4% 성장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총생산액(GDP)은 56조 2,642억 위안(약 1경 973조 원)으로 2.5% 성장하였고, 2분기 GDP는 29조 2,464억 위안(약 5,703조 원)으로 0.4% 성장함
- 상반기 하곡(夏粮) 생산량은 1억 4,739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43만 톤 증가, 규모이상(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3.4%, 서비스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1.8%임. 첨단기술 제조업 부가가치는 9.6% 증가,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는 20.2% 증가함
- 상반기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1.7%로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였고 취업과 민생도 보장되었으며, 상반기 신규 취업자는 654만 명으로 집계됨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2-07/16/content_25929230.htm

2 中, 1~5월 외자이용액 22.6% 증가한 878억 달러 달성

- 올해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외자유치 규모는 여전히 두 자리수의 성장세를 보임. 1~5월 중국의 외자이용액은 전년 동기대비 22.6% 증가한 878억 달러이며, 5월 말 기준 외국인 투자기업 수는 총 66.6만 개사로 지난해 말 대비 0.3% 증가하였음
-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계약액 1억 달러 이상 대형 프로젝트 투자액이 47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0.3% 증가함. 분야별로는 첨단기술 산업의 외자이용액이 42.7% 증가하였음. 한편 한국, 미국, 독일의 대중 투자가 각각 52.8%, 27.1%, 21.4%의 증가율을 보였음

- 중국미국상회의 6월말 조사결과에 따르면 58%의 기업은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응답했고, 5월 조사결과보다 26%p 상승하였음. 중국유럽상회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1%의 응답기업만 중국의 방역정책으로 재중 업무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답했고 대다수의 기업은 업무상 변동이 없거나 이러한 고민을 하기는 아직 이른 단계라고 함
- 한편 상반기 일련의 대형 외자 프로젝트가 순조로운 진전을 보였음. 예로 들어 투자액 421억 위안(약 8.2조원) 규모의 중사구레이(中沙古雷) 에틸렌(乙炔) 프로젝트가 건설을 개시했고 BMW 그룹의 선양(沈阳) 화천BMW 완성차 3공장이 생산가동을 개시함
*중사구레이(中沙古雷) 프로젝트 : 푸젠성(福建省)에너지화학그룹과 글로벌 석유화학기업 사빅(SABIC)의 푸젠성 구레이(古雷)지역 에틸렌 연간 생산량 150만 톤 생산규모 석유화학기지 투자건설 프로젝트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2-07/15/content_25929056.htm

3 中 교역액, 8분기 연속 전년 동기대비 성장세

- 올해 상반기 중국의 교역액은 19조 8,000억 위안(약 3,856조원)을 달성했으며, 8분기 연속 전년 동기대비 성장세를 기록함
- 올해 3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우크라이나 위기와 벌크상품 가격 상승 등의 여러 요인으로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지의 무역업체가 어려움을 겪었으며, 5월부터는 효과적인 방역으로 기업들이 조업을 재개하였고, 특히 장강삼각주 지역의 수출입이 빠르게 회복되어 전국 교역액 증가율 회복을 견인하였음
- 5월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동북지역의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48%, 2.8%, 12.2%이며, 6월에는 각각 14.9%, 6.4%, 12.8%로 증가속도가 더 빨라짐. 6월 장강삼각주 3성 1시(장쑤, 저장, 안후이, 상하이)의 전국 대외무역 증가에 대한 기여율이 40%에 달했음
- 한편, 상하이철도 민항역(闵行站)의 '중국 유럽열차-상하이호'는 6월부터 운행횟수가 회복세를 보여 7월에 운행횟수를 증가했으나, 여전히 고객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상반기 중국의 전기기기(电工器材), 집적회로, 자동차 등 기전제품 수출이 각각 24.8%, 16.4%, 51.1% 증가하고, 첨단기술,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이 비교적 빠른 증가세를 유지하였음

- 또한 상반기 아세안, EU, 미국과의 교역액은 각각 10.6%, 7.5%, 11.7% 증가하고 일대일로 주변국가, RCEP 회원국과의 교역액이 각각 17.8%, 5.6% 증가하였음
- 6월초 중국 최대 상용차 기업 포톤자동차(FOTON)는 독일 뮌헨 환경기술무역전시회에서 IBLUE 시리즈의 순수전기자동차 트럭 2종을 출시하였고, 새로운 시장 개척에 힘입어 상반기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55% 증가하였음. 한편 상반기 이치(一汽), 비야디(BYD), 테슬라 상하이공장 등의 수출도 양호한 실적을 달성함.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중국의 자동차 누적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47.1% 증가하였으며, 신에너지차가 자동차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함
- 4월 개최된 제131회 광저우교역회에는 228개 국가와 지역의 54만 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가하여 인원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고, 7월 개최 예정인 제2회 하이난 소비재박람회는 글로벌 범위에서 참가업체를 모집하여 일본, 미국, 프랑스의 전시면적이 1~3위를 차지하였음. 제5회 상하이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는 글로벌 500강 기업과 업종 선도기업 260개사가 참가를 신청함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2-07/14/content_25928788.htm

4 中, 탄소거래시장 출범 1년간 탄소배출권(CEA) 거래량 2억 톤 근접

- 상하이환경에너지교역소에서 개최한 '2022년 중국국제 탄소거래대회'에 따르면 2021년 7월 16일 전국 탄소거래시장을 출범한 후 지난 1년간 탄소배출권(CEA) 누적 거래량은 1억 9,400만 톤, 누적 거래액은 85억 위안(약 1조 6,500억원)을 달성했음
- 2021년 7월 16일부터 2022년 7월 15일까지 탄소거래시장은 총 52주간 242일을 운영했으며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가한 기업수는 중점 탄소배출 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탄소거래시장 운영은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전탄소 발전을 추진하는 혁신제도 중 하나로 탄소피크와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하는 중요한 정책이며, 중국 정부는 기업들에게 탄소배출 쿼터를 발급하고 실제 배출량이 쿼터량을 초과할 경우 탄소거래시장에서 다른 기업 쿼터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음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2-07/18/content_25929357.htm

5 中, 상반기 소매판매액 0.7% 감소..6월부터 회복세 보여

- 중국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시장이 비교적 큰 충격을 받았으며 소매판매액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세를 보임
- 상반기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기대비 0.7% 감소한 21조 432억 위안(약 4,097억원)이며, 1분기 증가율은 3.3%, 2분기는 4.6% 감소함
- 온라인 소비는 지속적인 상승세로 상반기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5.6% 증가하여 전체 소매판매액의 25.9%를 차지함. 상품 소매판매액을 보면 식품류, 의류, 일상용품 판매액이 각각 15.7%, 2.4%, 5.1% 증가하였음. 한편 상반기 택배 업무량은 3.6% 증가한 500억 건으로 집계됨
- 6월부터 전국의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고 소비촉진 정책에 힘입어 소매판매액이 전년 동기대비 3.1% 증가하였으며, 5월 하락폭이 4월 대비 축소된데 이어 플러스로 돌아섰음

자료원 : 중국경제망

http://www.stats.gov.cn/tjsj/sjjd/202207/t20220715_1886496.html

6 中, 상반기 조선업 3대 지표 모두 세계 1위

- 올해 1~6월 중국의 선박 건조량, 신규 수주량, 수주 잔량이 각각 세계 전체의 45.2%, 50.8%, 47.8%로 3대 지표가 세계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함. 올해 공급망 문제점이 해결되면서 조선업은 안정적인 발전을 보였음
- 1~6월 선박 건조량은 1,850만 적재톤, 신규 수주량은 2,246만 적재톤이며, 6월 말 수주 잔량은 1억 247만 적재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8.6% 증가함. 전국 상위 10대 조선업체의 선박 건조량, 신규 수주량, 수주 잔량 집중도는 각각 70.9%, 68.3%, 66.5%로 나타남
- 선박 교부 소식도 잇따라 전해졌으며 6월 22일 후둥중화(沪东中华)와 중국선박공업무역유한공사(中船贸易)가 공동 제조한 세계 최대 규모인 2.4만TEU 컨테이너선이 정식으로 교부되었고 6월 27일 중국선박그룹(中国船舶集团) 산하의 장난조선(江南造船)이 제조한 1.5만 TEU 듀얼연료엔진 장착 초대형 컨테이너선 4번째 척이 교부됨. 최근 장쑤 신스다이조선(新时代造船)과 지중해해상운송(地中海航运)은 LNG 듀얼연료엔진을 장착한 컨테이너선 20척 제조 협약을 체결하였음

자료원 : 인민일보

http://www.ce.cn/cysc/jtys/haiyun/202207/15/t20220715_37871328.shtml

7 中, 아시아 첫 화물전용 공항 - 후베이 어저우화후(鄂州花湖) 공항 운영 개시

- 세계 4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화물전용 공항인 후베이 어저우화후(鄂州花湖) 공항이 7월 17일부터 정식 운영을 개시하였음
- 어저우화후공항에서 1.5시간을 비행하면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도시군을 포함한 중국 5대 도시군에 도착하여 전국 경제총량 90%를 아우르며, 화물이 '1일이면 전국 도착, 다음날 글로벌 도착' 목표를 실현 가능함
- 어저우화후공항은 낮에는 여객수송, 야간에는 화물운송을 진행하며, 100킬로미터 거리에 소재한 우한텐허(武汉天河) 국제공항과 '더블 허브(dual hubbed)'로 등극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 CCTV 뉴스

<https://36kr.com/newsflashes/1830916405158145>

8 안후이성 허페이시,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 적극 발전

- 최근 안후이성 허페이시는 신에너지차 배터리 제조업을 집중 발전시키며 일련의 배터리 생산업체를 육성 및 영입하여 신에너지차 배터리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음
- 신에너지차 산업사슬에 대한 과학기술 투자와 정책 지원을 강화하여 산업사슬 분포를 최적화하고 신에너지차 공급망 안정성과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음
- 허페이시에는 귀쉬안(国轩) 배터리회사 포함 신에너지차 관련 규모이상(*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기업이 305개사에 달하며 완성차, 핵심부품 등을 포함한 산업사슬을 완비하였음

자료원 : 신화망

<https://cj.sina.com.cn/articles/view/2810373291/a782e4ab02002eb1z>

<https://finance.eastmoney.com/a2/202207182452092422.html>

9 베이징시, 1억 위안 규모 요식업 소비쿠폰 발행

- 베이징시 상무국은 요식업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7월 18일부터 1억 위안(약 195억원) 규모의 요식업 소비쿠폰을 발행한다고 발표함
- 요식업 소비쿠폰은 배달음식용, 오프라인 매장용, 노약자용 등 3가지로 구분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발행하며 쿠폰 금액은 각각 15위안(소비 50위안시 15위안 감면), 30위안(소비 100위안시 30위안 감면)으로 베이징시 소비자에게 적용됨
- 이번 요식업 쿠폰 발행 행사에 온·오프라인 요식업체 7만 개사가 참가하였으며 소비쿠폰은 건축은행생활(建行生活), 메이똌(美团), 어러머(饿了么), 징둥(京东), 유니온페이(银联) 등 플랫폼을 통해 발급할 예정임

자료원 : 신화사

<https://h.xinhua.com/vh512/share/10959373?channel=weixin>